

장흥군,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첫삽'

국비 313억원 투입해 건립...2024년부터 본격 운영 스포츠 인재 양성 미래형 교육장 모습 영상으로 공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랐다. 장흥군은 18일 사업 예정지인 부산면 심천공원에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기공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기공식에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 장흥군 관계자 등 100여명의 인원이 현장 참여했다.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체육단체 등 스포츠인 50여명도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해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을 축하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스포츠 가치를 선도하는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한 미래형 교육장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기념사에서 "대한민

국 체육의 미래를 주도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장흥군 발전에 공헌하는 공신력 있는 스포츠 아카데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건립될 때까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장흥군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은 전국 체육인들의 교육연수와 동·하계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사용되는 시설이다. 국비 313억원이 투입되며, 교육동, 숙박동(200명 동시수용), 종합운동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24년 문을 연다.



장흥군은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정식 운영을 시작하면 한 해 평균 약 9만명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김도영 기자



"해남에서 놀며 쉬며" 망끝마실로 오세요

생활관광 프로그램 '망끝마실' 운영

해남군과 해남문화관광재단은 해남형 생활관광프로그램 '망끝마실'을 본격 운영한다. 망끝마실은 해남군에서 인증한 숙박업체에서 1박 2일동안 체류하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관광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에 농촌체험(딸기따기, 바나나 따기 등), 어촌체험(낚시, 조개잡이 등), 생활체험(다도, 서각, 요리 등)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망끝마실 프로그램은 2022년 생활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월 이후에는 3박 4일, 6박 7일의 장기체류형 상품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피크닉용품 대여, 마실키트(세안용품 등)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을 추가해 풍성한 즐거움과 이용객 편의를 강화해 나간다. 신청은 망끝마실 홈페이지(해남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망끝마실에서 망끝마실 정보와 숙박업소, 체험을 확인한 후에 희망 날짜에 예약이 가능한지 업체에 유선확인하고,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등록하면 된다. 이용요금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망끝마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다음달부터 카페 식당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장흥군은 4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등 1회용품의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4월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 규제대상 품목에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우산베닐과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 신지면에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 세 가지 테마 거리 및 쉼터 조성·유배지 복원 등 완료

완도군은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7일 준공식을 가졌다.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는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지면 대평리 일원에 조성했다. '무명의 길, 솔향의 길, 묵향의 길' 등 거리(1.380m)와 쉼터 조성, 신지중학교 담벼락을 따라 이광사의 글씨와 작품을 새겨 두었으며, 이광사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소나무(원교목) 정비 및 유배지도 복원했다. 원교 이광사(1705-1777)는 조선 후기 대표 서예가이다. 함경도에서 유배 생활 중 완도 신지도로 이배되어 15년을 보내다 72세 나이에 신지도에서 생을 마쳤다.

신지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서체를 모방하지 않고 가장 한국적인 서체의 모태가 된 '동국진체'와 서예의 체계적인 이론서인 '서결'을 완성했다. '서결'은 대한민국 보물 제1969호로 지정됐다. 이에 군은 원교 이광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사상과 예술 세계를 알리고자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가 신지면의 대표 관광지인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신지를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등과도 연계되어 완도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진도군, 봄철 72ha 조림 사업 실시

7억5천만원 투입...탄소 흡수원 확충·산림 경제적 가치 증진 기대



진도군이 봄철 조림 사업을 위해 7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흡수원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통한 청정지역 이미지 향상을 위해 조림 사업에 나선다. 조림 사업은 ▲지역특화 조림 24ha ▲경제수 조림 30ha ▲큰나무 조림 10ha ▲미세먼지 저감 조림 8ha 등 총 72ha 규모로 식재 수종은 활참, 동백, 석류 등이다. 또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해에 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편백 대묘(4년생) 등도 함께 식재한다. 조림 사업은 지속 가능한 목재 자원의

공급뿐만 아니라 산림 휴양 수요증대에 따른 치유공간 확충,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은 실천이 미래세대에게 경제적 자원이 되는 물론 장래의 소중한 공익적·환경적 자원이 된다"며 "봄철 조림 사업을 완료하고 하절기에는 풀베기,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를 추진해 지속적인 목재 공급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하고 소득이 되는 경제림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이번 조림 사업과 함께 산림의 가치를 크게 저해하는 봄철 산불 예방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